



綠담笑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강한 정책을 희망한다.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생산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한 규제가 절실한 때!

#포장폐기물 #플라스틱 규제
#생산감축 #친환경소비

김지영
(GCN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

코로나19 이후, 변할 줄 알았던 소비 행태

먹고, 입고, 바르고,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접한다. 산업화 이후 생활 영역에서 언제나 떼어 수 없었던 이 소재는 참 가볍고 유용한 존재였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은 생태계 곳곳에 플라스틱 흔적을 남기며, 이제 플라스틱은 인류세의 대표적 화석이 되었다. 우리의 머리와 눈, 몸속 장기까지 플라스틱이 침투해 함께 지내고 있다. 산업사회는 탄소배출 곡선을 가파르게 올려 왔고, 코로나 이후 가속 그래프는 잠시 주춤했다. 2020년 소비 행동도 느리게 나타났고, 대기중 탄소배출도 줄었다. 다른 시대가 오는 줄 알았다.

플라스틱 규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려보자. 2008년 르완다를 시작으로 지난해 소말리아까지 아프리카대륙의 34개국은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18년 호주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프랑스에서는 신선야채와 과일 포장에 플라스틱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인도와 영국도 빨대와 커트러리(음식 먹을때 쓰는 칼이나 포크), 음식 포장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가? 2020년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과)의 플라스틱의 1인당 연간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용기 부분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소비량은 568개로 1명이 매일 1.5개 이상의 배달 용기를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와 1년에 약 19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 소비자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플라스틱 용기 생산이 과도하다. 규제정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소비자는 물건을 소비하는 대상자일 뿐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넘쳐 나는 물건에 포위당하고 있다. 기업이 의도하는 소비에 소비자는 쉽게 구매행위를 한다. 생산은 5초, 소비는 5분, 폐기물은 500년 걸린다는 플라스틱. 여러 업계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재활용 영역에서 감당하기가 버겁다. 자원은 한정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 그간 LCA과정에서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노력해왔고, 해외수출을 대비해 탄소저감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좀더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화장품영역도 아직 더디다. 용기 재질의 단일화에 더욱 앞장서야 하며, 용기 표준화를 위한 협업이 중요한 시기다. 식품도 소비자의 편리만을 위주로 포장재가 개발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노력, 다량구매가 아닌 한 개를 사더라도 오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해야 한다. 편안함에 젖은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물건을 담아내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금이 실천할 때

기업이 바뀌려면 정부의 감축에 대한 의지, 강한 정책이 요구된다. 재활용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재활용의 기술발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누가 보상해 주는가? 시장에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움직여도 쉽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일 것이다. 그 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돌리는데 정부의 과감한 단행이 필요하다. 오랜 내전과 척박한 기후 속에서 살아온 아프리카 대륙과 어느새 변화한 EU 국가들의 자원순환 노력을 보아야 할 때다.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